

미국산 수입쇠고기와 촛불시위 보도에 나타난 뉴스 프레임 비교 연구

임양준*

(경성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초빙교수)

이 연구는 미 수입쇠고기와 촛불집회 논란에 대한 중앙일간지인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 그리고 지역일간지인 『강원일보』의 뉴스보도 프레임을 텍스트 분석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엔트만(1993)의 프레임 정의를 사용하여, 보도내용을 형식적인 면과 내용적인 면으로 나누었다. 형식적인 면으로 일화적, 주제적 그리고 일화적+주제적 중심 프레임으로 구분하였으며, 내용적 면으로 ‘책임귀인’, ‘인간적 흥미’, ‘대항’, ‘민주적 합의’, ‘국민건강’ 그리고 ‘정책홍보’ 등 총 8개의 프레임으로 세분화하였다. 기사유형으로는 스토레이트성 뉴스전체평균 75.9%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기획·특집(11.7%)과 사설(6.3%) 순이었다. 『조선일보』의 경우, 사설(11.0%)의 비율이 다소 높았으며, 한겨레는 기획·특집기사(20.9%), 그리고 『강원일보』는 뉴스(89.7%)가 절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형식적인 측면에서 일화 중심적 프레임 비율이, 『조선일보』(90.3%), 『한겨레』(66.3%) 그리고 『강원일보』(88.8%)로 조사돼 연구대상 신문 모두 일화 중심 프레임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사별로 강조된 프레임을 살펴보면, 『조선일보』는 국민건강(17.8%)과 책임귀인 프레임(10.6%)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한겨레』의 경우, 대항프레임(31.3%)과 책임귀인 프레임(38.4%)의 비율이 높았으며, 『강원일보』는 대항프레임(38.4%)과 경제적 프레임(17.9%)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신문사별 프레임 특징 면에서, 『조선일보』는 미 수입쇠고기와 촛불집회에 대한 미국과 한국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는 정책홍보 프레임(25.4%)의 비율이 높았다. 『한겨레』의 경우, 수입쇠고기에 대한 기획·특집기사의 보도비율이 높았으며, 『강원일보』는 높은 비율의 경제적 프레임에도 불구하고, 사설이나 칼럼 등 의견성 기사의 비율이 매우 낮아 수입쇠고기로 인한 잠재적인 경제적 피해에 대하여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제어: 뉴스 프레임, 미 수입쇠고기, 촛불집회, 사회적 갈등, 프레임링 효과

* image@ks.ac.kr

1. 서론

사회적 관계가 발달하고 다원화될수록 사회적 갈등의 형태가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 갈등은 정치영역을 포함하여 환경, 교육, 지역, 소비자권리 등의 형태로 계층 간, 지역 간, 집단 간, 세대 간 등의 갈등으로 표출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노사분규나 반정부 시위를 통하여 의료분쟁, 금융파업 그리고 지역개발을 둘러싸고 주민과 행정당국과의 대립으로 표출되어왔다.

이와 더불어 국제적 무역확대와 개방에 따라 타국과의 협정 체결을 결정한 정부와, 협정 결과에 따라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는 국민 간의 갈등도 늘어나고 있다. 최근 발생한 미국산 수입쇠고기와 관련한 정부와 국민 간의 사회적 갈등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미국산 수입쇠고기 관련 문제는 소수의 특정 이익집단 간의 갈등이 주된 이슈였던 기존의 사회적 갈등과는 차이가 있다. 즉, 미 쇠고기수입 논란은 미국을 상대로 한 한국정부의 부실협상으로 촉발되어,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를 중심으로 한 보수언론과, 『한겨레신문』·『경향신문』 등의 진보신문, MBC, 인터넷 포털, 네티즌 그리고 정부당국 등 여러 다양한 집단들이 개입된 매우 복잡한 사회적 갈등사태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사회적 갈등과 차이가 있다.¹⁾

집단 간 사회적 갈등에 있어 언론의 사회적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미디어 정치가 발달하면서 언론은 갈등의 정치화와 사회화의 통로가 되었고, 그런 언론이 다양화되고 있는 갈등을 어떻게 보도하는지에 따라 갈등 당사자들의

1) 또 다른 차이로는 첫째, 미 쇠고기 수입논란은 특정 이익집단이 주도한 시위가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거나 호응하며 참가한 시위였고, 둘째, 미 수입쇠고기에 대한 검역주권과 더불어 국민 자존심과 관련한 민감한 사회문제였을 뿐만 아니라, 셋째, 미 쇠고기는 식생활과 밀접한 음식문화이면서 광우병으로 인한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우려해야 하는 중요한 건강관련 문제이며, 넷째, 시위를 조직하고 이끄는 특정조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대규모 시위에 동참하였으며, 다섯째, 평화시위를 전제로 한 문화제 성격의 촛불시위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사회적 갈등과 차이가 있다.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의 안정과 유지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함의를 지니기 때문이다(양정혜, 2001). 또한 공중은 직접적인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는 현실의 이해를 위해서 언론이 제공하는 이미지나 담론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이익집단들로 자신의 쟁점을 공중에게 알릴 수 있는 통로로서 매체접근(access to media)이 중요하며 매체로부터의 우호적 관심은 공중으로부터의 신뢰획득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도 하다(양정혜, 2001).

언론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사회적 갈등과 이견을 조정하는 책무이다. 그러나 때로 언론은 사회적 이슈나 문제의 핵심과 본질을 보도하기보다는 집단 간의 갈등적 측면을 많이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 갈등보도는 독자들의 관심과 시선을 사로잡는 데 좋은 소재이기 때문(Neuman et. al, 1992)에 언론보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²⁾ 이런 사회적 갈등보도에 대하여 언론은 보편적으로 체제 중심적 이데올로기 구조, 사건 중심적, 흥미성, 해결방안 미 제시 등의 일관성을 보이는 반면, 각 언론사에 따라서는 정치적 지향성, 신문사의 소유구조, 그리고 기자 개인의 문제로 언론보도에 있어 각기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다(Shoemaker & Reese, 1996).³⁾ 따라서 이러한 보도형태는 뉴스 프레임 효과로 나타난다.

뉴스 프레임 효과에 의하면, 뉴스 스토리를 구성하는 방식 자체가 뉴스 수용자의 의견형성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다(이준웅, 2001). 즉, 언론이 취한 입장과 그에 따른 보도양식에 따라서 뉴스내용에 대한 국민의 해석과 이해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Gamson, 1992; Iyengar, 1991; Price & Tewksburg, 1997). 따라서 같은 사건이나 이슈라 할지라도 뉴스 프레임에 따라 그 관점과 논리 그리고 결과에 대한 함의가 달라지며, 같은 사건이나 이슈에 대한 뉴스일

2) 김동규(2000)는 언론보도에서 갈등기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가량이라고 주장했다.

3) 슈메이커와 리즈(Shoemaker & Reese, 1996)는 미디어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다섯 가지 요인들을 ‘언론인 개개인’, ‘미디어 관행’, ‘언론사 자체조직’, ‘언론사 외적요인’, 그리고 ‘이데올로기’로 범주화했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 해석한다면, 미디어 관행은 언론사 자체조직으로 포함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미디어 관행은 미디어 조직이 가진 제한된 인적·물적 자원과 이에 대비되는 무한한 잠재적 뉴스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행이 생겨났기 때문이다(김동균, 2003).

지라도 뉴스 프레임이 다르다면 이를 접한 국민의 그 사건과 이슈에 대한 해석과 의견도 달라진다는 것이다(Nelson & Oxley, 1999; Rhee, 1997; Shah, Domke & Wackman, 1997). 결국 뉴스 프레임 연구는 뉴스의 내용과 중요도의 영향력도 중요하지만 ‘뉴스 스토리를 구성하는 방식’ 자체가 뉴스 수용자의 의견형성에 보다 미묘하고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국내 사회적 갈등에 대한 텍스트 분석적 뉴스 프레임에 대한 논문은 많았다(이준웅, 2001; 권혁남, 2001; 양정혜, 2001; 박경숙, 2002; 원만해·채백, 2007). 그러나 이러한 논문은 주로 특정 이익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로 대립하는 사회적 갈등에 대한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특정 이익집단 간의 갈등이 아닌, 정부의 수입품목인 미 쇠고기에 대한 보수언론의 왜곡보도와 정부의 부실 외교협상으로 촉발되어 네티즌, 진보언론, 방송, 인터넷 포털과 정부당국까지 개입된 복합적인 사회적 갈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미 쇠고기에 대한 수입 전면개방을 촉구하는 보수언론과 조건부 수입을 주장하는 진보언론이 서로 대항하면서 자신들의 행위와 논리에 대한 타당성을 주장하는 보도형태가 어떻게 구축되었는가 하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광우병 관련 수입쇠고기와 같은 정치·경제·사회적 파장이 큰 사회적 이슈를 효과적이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미 쇠고기 관련보도에 대한 프레임 분석을 통해 신문과 방송, 네티즌 그리고 정부 간의 사회적 갈등 문제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언론의 역할과 공정한 보도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2. 미 쇠고기수입 사태의 특성과 이해

미 쇠고기 수입논란 사태는 언론과 네티즌 그리고 정부 등 여러 집단 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사회적 갈등이다. 이에 따라 광우병과 관련한 미 쇠고기 수입 논란에 대한 시기별 흐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미 쇠고기 2차 협상 개시안(2008.4.11)과 협상타결(2008.4.18) 그리고 한미정상회담(2008.4.19)을 거치는 동안,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들은 미 쇠고기 수입개방을 요구하는 논조로 일관하였다.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동안 보수언론들의 논조에 반대하는 네티즌들의 직접적인 집회나 시위는 없었다. 그러나 MBC 문화방송의 <PD수첩>(2008.4.29)의 방영을 계기로 보수언론들의 MBC와 <PD수첩>에 대한 집중적인 비난이 거세어졌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들은 <PD수첩>의 방송내용이 ‘광우병 부풀리기’라면서 <PD수첩>을 비난함과 동시에, MBC가 특정의도를 가지고 사회적 여론몰이와 네티즌의 촛불집회 참가를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커졌다.⁵⁾

특히 미 쇠고기수입 문제와 관련하여 전국적인 촛불시위를 부추긴 계기는 농림수산식품부가 <PD수첩>에 대한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조정 신청에 따른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이었다(2008.5.19).⁶⁾ 『한겨레신문』을 비롯한 진보언론은 언론중재위의 직권중재결정을 이해할 수 없는 결정⁷⁾이라고 보도한 반면, 『조선』, 『중앙』, 『동아일보』 등은 <PD수첩>의 사실과 다른 보도 때문에 국민과 네티즌이 촛불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처럼 주장⁸⁾하는 등 여론을 호도하였다.

<PD수첩>에 대한 보수언론의 비난이 계속되자, 시위와 집회가 폭력적인

4) 예를 들면, “쇠고기 타결, 미국이 FTA 비준 미룰 핑계 없어져”(『조선일보』 사설, 2008.4.18); 임소영(2007.3.23), “몹쓸 광우병! 한국인이 만만하니”, 동아일보, A9쪽; 박혜민(2007.8.7), “왜 미국산 쇠고기서 뼈 자주 나오나”, 『중앙일보』, 16쪽.

5) “TV 광우병 부풀리기 도 넘었다”(『조선일보』 사설, 2008.5.1).

6) MBC <PD수첩>(2008.4.29 방영)인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조정 신청을 언론중재위원회가 받아들여 직권중재를 결정했다.

7) ‘미국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 관련 조·중·동 보도 일일 모니터 브리핑(2008.5.22), 민주언론시민연합 보고서.

8) “MBC는 시인할 건 시인하고 사과할 건 사과할 줄 아는 언론의 기초상식을 회복해야 한다”(『조선일보』 사설, 2008.5.22).

가두시위로 변화였다(2008.5.24). 시위가 절정에 이른 6월 10일에는 시위 사상 최대 인원인 100만 명이 참가한 촛불대행진이 열렸다. 이와 동시에 5월 말부터 일부시민 단체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조선』·『중앙』·『동아일보』 등의 보수 언론에 대한 광고 불매운동도 절정에 이르렀다. 보수언론에 대한 광고 불매운동은 6월 9일부터 19일까지 절정에 달했으며, 이 기간 동안에 『조선』·『중앙』·『동아일보』에 대한 광고 수주액은 약 절반 이상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⁹⁾ 발행지면의 대폭감소로 이어졌다.¹⁰⁾

네티즌들의 보수언론에 대한 광고 불매운동이 확대되자 『조선』·『중앙』·『동아일보』는 광고 불매에 언론에 대한 사이버테러라고 주장하였다.¹¹⁾ 광고 불매운동은 네티즌과 일반시민, 그리고 포털언론과 『조선』·『중앙』·『동아일보』의 대결양상으로 번지면서 복잡한 사회적 갈등상태로 변화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조선』·『중앙』·『동아일보』에 대한 광고 불매운동은 위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려 보수언론 편을 들어주었다(2008.7.1).

미 쇠고기수입 논란과 관련하여 보수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은 신문논조의 일관성 문제가 발단이었다. 『조선』·『중앙』·『동아일보』의 경우, 노무현 정부시절 미 쇠고기수입에 대한 논조는 광우병 문제와 관련하여 수입반대 입장이었다. 그러나 현 정부가 이명박 정부로 바뀌면서 갑자기 미 쇠고기수입 개방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여 네티즌과 시민단체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보수언론은 광우병 관련 미 쇠고기 수입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왜곡

9) 기자협회보가 6월 10~17일 『조선』, 『중앙』, 『동아』의 대기업 광고수주 현황을 살펴본 결과, 주요 대기업 광고수주 평균은 『조선일보』가 3.3건, 『동아일보』가 3.1건, 『중앙일보』가 2.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5월 평균(『조선일보』 12건, 『동아일보』 11건, 『중앙일보』 11.4건)과 비교하면 70%가 줄었다(장우성, 2008).

10) 2007년 6월 9~17일 평균 발행부수와 2008년 6월 9~17일의 평균 발행부수를 살펴보면, 『조선일보』는 65면에서 49면으로 16면 급감, 『중앙일보』는 56면에서 46면으로 10면 축소, 『동아일보』는 54면에서 44면으로 10면 감소함(<뉴스후>, 2008.7.5), 조·중·동 vs. 네티즌, 서울: 문화방송.

11) <뉴스후>(2008.7.5), “조·중·동 vs. 네티즌”, 서울: MBC 문화방송.

보도를 많이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사실 짜깁기, 본질 흘리기, 축소·묵살 보도, 편파 보도, 색깔론 등¹²⁾ 다양한 불공정 보도형태로 나타났다.

정리하면, 미 쇠고기수입과 촛불시위 사태는 그 동안 수입반대 성향을 보였던 보수언론의 논조가 정부가 바뀔과 동시에 갑자기 수입개방에 대한 적극 지지로 바뀌면서 편파·왜곡 보도가 자주 발생했다. 이러한 보수언론의 불공정 보도형태를 비난하는 네티즌은 『조선』·『중앙』·『동아일보』의 광고 불매운동으로 맞섰으며, 이에 보수신문들은 광고 불매운동은 사이버테러라고 주장하였다. 이때 정부와 검찰이 보수언론과 네티즌과의 싸움에 개입함으로써 미 쇠고기수입과 관련한 논란은 단순히 한두 이익집단 간의 세력다툼 형식이 아닌 『조선』·『중앙』·『동아일보』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한 검찰과 정부당국, 그리고 네티즌을 중심으로 한 인터넷 포털, MBC,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등 진보세력의 대결양상의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정치·경제·사회적 문제인 미 쇠고기 수입 논란과 촛불집회에 대한 한국과 미국정부, 네티즌 그리고 진보와 보수세력 간의 다양한 입장이나 주장이 언론을 통해 수용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언론매체에 따라 뉴스스토리를 구성하는 방식에 차이점은 없는지를 텍스트 분석적 뉴스프레임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3. 이론적 배경

1) 뉴스 프레임의 유형과 특성

뉴스 프레임¹³⁾이란 중요한 사건이나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슈와 관련되어

12) 민주언론시민연합 모니터 보고서(2008.5.8~16).

13) 쉬펠레(1999)에 따르면, 프레임은 뉴스 프레임과 개인 프레임으로 구분된다. 뉴스 프레임 혹은 미디어 프레임은 사건에 의미를 부여하는 핵심적인 생각 혹은 이야기의 골자로 틀을 짓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이슈 중 어느 한 부분을 선별해서 부각시키는

있는 사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성된 핵심 아이디어이다(Gamson & Modigliani, 1989). 언론은 프레임링 과정을 통해 특정 측면을 선택, 부각하고 다른 측면을 배제 또는 왜곡함으로써 사회적 현실을 구성한다(Gamson & Modigliani, 1989). 이와 같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뉴스 프레임은 강조된 키워드, 메타포, 콘셉트, 심벌 그리고 시각적 이미지 활동을 통해 수용자의 인식에 조직적·체계적 영향을 미친다(정수연, 2005).

뉴스 프레임과 관련 있는 대표적인 프레임은 송신자 프레임이다. 이 경우 프레임은 언론사, 전문가 집단, 관료 또는 사회운동단체가 특정 쟁점을 규정하는 담론을 의미한다(Entman, 1993). 따라서 언론이 프레임을 사용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슈에 대한 자신들이 내린 정의, 곧 프레임이 사회적 지배적인 해석으로 받아들여지도록 하는 것이다. 스노우와 벤포드(Snow & Benford, 1998)는 사회단체가 내린 정의를 집단행위 프레임 또는 해석의 틀이라고 규정하고 그 조직이 공중의 지지와 참여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공중의 가치와 삶의 조건에 부합하는 프레임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보도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을 검토해보면 뉴스 프레임의 유형은 대체로 사건 중심적 프레임과 이슈 중심적 프레임 형태로 구별된다. 여기서 사건이란 진행과정과 그 결과를 묘사하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이슈는 사건의 전후 맥락과 역사를 설명한다(Sheufele, 1999). 즉 사건인 행위에 자체에 중점을 둔 뉴스 프레임 형식이 있으며, 또한 과도하게 이슈인 배경에 초점을 맞춘 프레임 형식이 있다는 것이다. 1960년대 미국 대학생들의 베트남 전쟁에 대한 반전시위에 대한 보도연구(Gitlin, 1980)와 원자력 발전에 대한 미국 여론의 변화과정에 대한 연구(Gamson & Modigliani, 1989)에서 미국언론은 집단 항의운동을

것이다(Entman, 1993). 반면에 개인 프레임은 정보원, 기자, 수용자가 자기 머릿속에 축적하고 있는 정보처리 지침의 집합, 즉 스키마(schema)를 의미한다. 엔트만은 개인 프레임을 송신자와 수신자의 경우로 나누고 여기에 사회 일반에서 공유하고 있는 프레임의 집합적인 요소, 즉 문화를 추가했다. 따라서 그는 송신자, 텍스트, 수용자, 문화라는 네 지점에서 프레임이 작용한다고 하였다. 이 네 지점을 정보의 흐름의 단계에 따라 송신자 프레임, 뉴스 프레임, 수용자 프레임, 그리고 사회 프레임으로 불렀다.

서술한 뉴스내용은 그러한 행위를 일으킨 배경, 즉 이슈보다 시위에 나타난 표면적 행위(사건)에 초점을 맞추어 보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뉴스 프레임의 특성을 설명한 아이엔가(Iyengar, 1991; Iyenger & Simon, 1993)는 뉴스 프레임을 일화 중심적(episodic) 프레임과 주제 중심적(thematic) 프레임으로 분류하였다. 전자는 공적(public)인 이슈를 구체적인 예나 특별한 사건으로 묘사하면서 개별적인 사례나 일회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보도하는 뉴스의 틀이다. 또한 후자는 공공이슈를 보다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형태로 제시하며, 일반적인 결과나 조건, 통계적 증언 및 증거 등을 강조하는 뉴스의 틀이다. 신문의 보도기사를 예로 들면, 일화 중심 프레임은 스트레이트 뉴스, 퓨처 뉴스, 또는 가십 기사를 의미한다. 선거기사에서 개인 신상에 관한 기사나 선정성 등의 내용으로 보도되는 전략기사(strategic news)는 일화적 프레임에 속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주제 중심 프레임은 해설이나 사설 또는 탐사보도 사건의 이해를 돕기 위한 보도기사이다.

커펠라와 제이미슨(Cappella & Jamieson, 1996)은 전략적 프레임(strategic frame)과 이슈 중심적 프레임(issue-based frame)으로 구분하여 수요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 그들은 선거를 전쟁이나 게임에 비유해서 보도하는 전략 중심적 뉴스구성은 수용자들에게 냉소주의를 유발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1992년 이후 대통령 선거운동과 관련된 보도기사와 1994년 미국 보건제도에 관한 보도기사에 대한 연구결과 선거보도에 대한 전략적 뉴스의 구성은 수용자들에게 냉소주의를 유발시킨다는 결론을 얻기도 했다.

언론이 프레임을 통해 보도되는 또 다른 특성은 개인화(personalization)와 극화(dramatization)이다(Iyengar, 1991; Iyengar & Simon, 1993). 뉴스보도가 개인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된다는 개인화는 수용자들로 하여금 뉴스내용 자체가 그 사람과 동일시하도록 만들어 수용자의 감정적 관여를 높이는 기능을 하며, 복잡한 사건을 이해하기 간단하게 전달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도 경향은 수용자들이 사회적 문제에 대한 원인을 밝히기보다는 표피적인 문제 또는 개별화된 인간의 문제로 인식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극화된 뉴스보도는 갈등을 강조함으로써 대립하는 의견들에 관심을 끌게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에서 갈등적이고 폭력적인 면을 지나치게 강조하기도 한다 (Baumgartner & Jones, 1993). 대통령 선거 캠페인을 경마중계 식으로 보도하거나, 테러, 전쟁, 시위 등에 대해 극화된 틀로 보도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보도는 비폭력적인 사건들은 무시될 수 있으며 극적인 요소, 갈등, 그리고 개인화의 요소가 결합된 중요한 이슈들은 보도에서 빠질 수가 있다. 따라서 언론의 극화 보도방식은 사회적 문제의 원인에 접근하기보다는 결과로서 나타난 징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Gamson, 1992). 베넷(Bennett, 1988)은 언론보도의 개인화와 극화에 대한 반복적인 보도는 수용자가 현실에 대한 이성적인 판단이 결여되어 총체적인 정치적 현실을 인식할 수 없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프라이스와 그의 동료(Price & Tewksburg, 1997)는 뉴스가 특정 주제나 이슈를 반복해서 제시하고, 수용자가 이를 반복적으로 받아들일수록 그 주제나 이슈의 활성화가 계속되므로 수용자의 인지구조 내에 그 주제나 개념의 접근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즉, 어떤 이슈가 중요한가라는 판단을 할 때, 접근성이 높아진 개념이 먼저 떠오르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언론의 프레임 방식에 따라 뉴스 수용자는 현실에 대한 인식과 판단 그리고 의견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뉴스 프레임 연구는 뉴스의 내용과 중요도의 영향력도 중요하지만, 뉴스 수용자는 뉴스 스토리를 구성하는 방식에 따라 현실을 다르게 인식하고 이해 한다는 것이다(이준웅, 2001).

2) 갈등적 프레임

언론의 사회적 역할 가운데 집단이나 조직 간의 마찰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균형 있는 사회발전을 구현하는 역할이야말로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때로 언론은 사회적 이슈나 핵심과 본질을 보도하기보다는 집단내의 갈등적 측면을 많이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갈등에 대한 설명제시에서 언론보도는 갈등을 단절적인 사건의 집합체나 입장의 차이가 극명한 두 집단 간의 대립으로 단순화하는 경향을 보인다(양정혜, 2001).

갈등집단의 입장에서 본다면, 언론매체는 갈등집단이 정통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언론의 관심 없이는 자신들의 문제가 공중의 담론영역에 진입하거나 정치적 의제로 채택되는 것이 불가능하며 결국 공중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양정혜, 2001). 따라서 사회적 갈등문제에 대한 언론의 프레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즉, 언론의 특정 사회적 문제에 대한 프레임은 사회구성원들이 현실을 해석할 때 결부시킬 수 있는 준거틀을 제공하여 사회적 갈등문제의 쟁점에 대해 일정한 유형의 판단이나 의견을 유발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 수입쇠고기 논란과 같은 사회적 갈등보도에서 특정 뉴스 프레임의 사용은 한 집단의 정당성 획득을 촉진할 수도 있고 장애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특히 갈등보도 프레임의 연구들에 의하면, 언론은 이미 확립되어 있는 소수의 뉴스 프레임에 의존해 사회적 갈등을 의미화한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갈등은 여러 단계를 거쳐 전개되는데 뉴스는 갈등이 명확하게 공중의 시야에 드러나는 단계, 즉 파업이나 시위, 소송 등과 같은 가시적인 사건에만 주된 관심을 할애하고 갈등이 빚어지게 된 원인이나 반대세력의 동기에 대한 설명 혹은 점차적으로 전개되는 과정으로서의 갈등에 대한 설명은 최소화한다(Gersh, 1992; Schmidt, 1993). 따라서 사회적 갈등에 대한 보도 프레임은 갈등에 참여하고 있는 이익집단의 성격과 갈등적 이슈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먼저 사회적 갈등에 대한 전형적인 보도 프레임은 책임귀인 프레임(양정혜, 2001; 박경숙, 2002; 김선남, 2002; 강내원, 2002; 나미수, 2004; 김원용·이동훈, 2005a; 김원용·이동훈, 2005b), 권위주의 프레임(박경숙, 2002), 대항 프레임(Price et al., 1997; Valkenburg et. al., 1999; Semetko & Valkenburg, 2000; 한균태·송기인, 2005), 그리고 인간흥미 프레임(Iyengar, 1991; Pan & Kosicki, 1993; Valkenburg et. al., 1999; Semetko & Valkenburg, 2000)이다.

최근 발생한 사회적 갈등인 미국산 쇠고기 문제 보도를 통해 기존의 사회적 갈등에서 표출되었던 전형적인 프레임의 특징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슈의 특성상 다른 종류의 보도 프레임의 특징도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예를 들면, 미국산 쇠고기 문제 보도에서 주요 보수 신문들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위험성과 국민들의 여론과 반응을 다루기보다는 미국정부와

한국정부의 의견만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데 관심을 보였다. 그뿐만 아니라 촛불시위 보도에서도 쇠고기 수입문제가 가족의 식생활과 삶의 문제가 아닌 이념적 문제로 프레임하여 문제의 본질을 보도하는 데 소홀히 하였다. 특히 주요 보수 언론사는 사건 중심적 보도와 갈등의 단순한 경향 이외에도 사회갈등 보도 프레임의 특징으로 정부의 입장만을 보도하는 편파식 보도, 촛불시위 참여자들에 대한 반미·좌파세력으로서 색깔론, 그리고 배후론이라는 언론보도를 통해 미 수입쇠고기 문제에 대한 정부당국의 의견만을 지지하며 보도하였다.

언론의 사회적 갈등보도는 법과 질서프레임에 의존함으로써 기존질서와 체계를 옹호하는 양상을 나타낸다(장용호, 1987). 많은 갈등보도 연구들은 뉴스가 권력집단을 체계적으로 옹호하는 관행을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노동자보다는 고용주를, 시위대보다는 경찰을, 새로운 사고보다는 이미 보편화된 가치관을 선호한다는 것이다(양정혜, 2001). 따라서 갈등에 개입된 집단들은 언론의 관심과 공중으로 부터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한 것으로 정착시키려고 노력한다. 법과 질서 프레임은 이러한 노력을 전개함에 있어서 사회적 규범이나 법의 준수가 우선적이고 필수적인 것으로 강조되는 뉴스 프레임의 틀이다(강혜주, 2006).

이렇듯 언론은 갈등 프레임을 통해 사회적 구성에 참여하다. 베스트(Best, 1995)는 언론이 갈등을 다루는 데 있어 높은 도덕성이나 물리적 나약함에 집중해 갈등 개입자를 호의적으로 조명할 수도 있고, 반면에 일탈적 측면을 강조해 주변화시킬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여러 가지 뉴스 프레임을 통해 제시되는 사회갈등에 따라, 정보원으로서 언론에 가장 많이 의존하고 있는 일반 사회구성원들은 언론보도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현실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하다. 이렇게 인식된 현실은 새로운 현실구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장석재, 2002).

3.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에 대한 보수와 진보신문, 방송, 인터넷 포털, 네티즌 그리고 정부까지 가세한 복잡한 사회적 갈등이 신문을 통하여 어떻게 프레임되어 나타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분석대상 언론사의 뉴스 프레임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동일 문제에 대한 각기 다른 보도의 경향과 접근의 특성을 알아보는 한편,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프레임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언론보도에서 사용된 프레임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언론보도는 시기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3: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기사에서 신문사별 프레임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2) 연구방법

(1) 분석대상과 기간

미국산 수입쇠고기 뉴스 프레임 연구에 대한 분석대상으로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그리고 『강원일보』 등 3개 신문을 선정하여 각각의 언론사들이 동일한 이슈에 대하여 어떤 프레임을 사용하는지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두 신문의 성향으로 인한 사회문화적 맥락과 배경,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 담론 주체들의 행위관계에 대한 다양한 프레임들을 폭넓게 선정하여 검증함으로써 보편적 프레임 유형의 타당성을 높여줄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김원용·이동

훈, 2005a). 또한 중앙일간지는 한우관련 보도에 대한 서울 중심의 여론을 일반적으로 보도하면서 지역축산농가의 입장을 대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역의 한우관련 여론을 살펴보고자 ‘횡성한우’ 그리고 ‘홍성한우’로 유명한 강원지역¹⁴⁾의 대표적인 일간지인 『강원일보』를 분석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는 쇠고기 수입 개방문제는 한우농가의 성장과 보호라는 측면에서 한우의 점유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인 강원도 축산농가에 한우가격 폭락에 따른 직접 경제적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분석기간은 한국과 미국정부 간의 수입쇠고기 제2차 협상 개시일인 2008년 4월 11일부터 촛불집회를 포함하여 미국산 수입쇠고기 문제에 대한 국정 조사가 시작된 8월 1일까지이다. 이 기간을 분석기간으로 선정한 이유는 미 쇠고기 협상과정과 수입개방에 따른 정부당국자의 의견과 이에 따른 한우 사육농가의 경제적 피해, 그리고 광우병 쇠고기의 안정성에 대한 소비자인 국민의 주장 등이 가지는 타당성을 분석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에 대한 국민 저항의 상징인 촛불집회 과정과 결과에 따른 의미를 평가해볼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가질 수 있으리라는 판단에서이다.

이에 따라 『한겨레신문』과 『강원일보』는 한국언론재단의 KINDS (www.kinds.or.kr)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쇠고기’, ‘쇠고기’, ‘촛불집회’, ‘촛불시위’ 등의 키워드로 자료를 검색하였다.¹⁵⁾ 『조선일보』의 경우, 해당 신문사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검색을 실시하였다.¹⁶⁾ 분석된 기사의 양은 『조선일보』가 236건, 『한겨레신문』 416건, 그리고 『강원일보』가 117건 등 총 769건이었다.

14) 2008년도 강원도 축산업 축종별 실태조사에 의하면, 강원도는 16,553가구가 한육우는 158,688두를, 그리고 한우는 155,085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한육우 중 한우는 97.7%로 전국평균 91.1%보다 6.6% 높아 전국에서 한우 점유비 1위 지역으로 조사됨 (출처: 강원도청 농정산림국 축산진흥과 홈페이지).

15) 검색된 자료 중 중복된 자료와 수입쇠고기와 관련이 없는 자료는 제외함.

16) 『조선일보』 보도기사는 KINDS에 수록되어 있지 않음(2008년 9월 현재).

(2) 미국 수입쇠고기 논쟁의 시기구분

미국 수입쇠고기와 관련된 논쟁의 흐름을 효율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정부의 정책변화와 국민의 대규모 저항 등 중요한 사건이 전개되는 과정에 따라 분석기간을 4개 시기로 구분하였다.

제1시기: 2008년 4월 11일~5월 1일 (한·미 간의 수입쇠고기 제2차 협상개시
~최초 촛불시위 시작)

제2시기: 2008년 5월 2일~5월 23일 (미 쇠고기 수입협상반대 최초 시위~정
운천 농림수산물식품부 장관의 국회해임안 부결)

제3시기: 2008년 5월 24일~6월 25일 (산발적인 촛불시위가 범국민적 가두시
위로 격화~미국 수입쇠고기 개방에 따른 관보게제 직전)

제4시기: 2008년 6월 26일~8월 1일 (수입쇠고기 관보게제~수입쇠고기 관련
국정조사 시작)

(3) 프레임 틀 구축

미 쇠고기 수입논란에 대한 보도를 구성하는 뉴스 프레임은 형식적인 측면과 내용적인 측면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이는 사회갈등보도에 대한 뉴스 구성의 특성상 뉴스 프레임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형식도 뉴스 텍스트가 의미를 형성하는 방식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전제에 근거한 것이다(양정혜, 2001). 이에 따라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프레임분석을 위해 뉴스보도를 사건중심 프레임과 주제중심 프레임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일화중심 프레임은 구체적인 사례가 특정사건을 중심으로 공적 이슈를 틀 짓는 방식이다. 일화중심 프레임은 무엇이 일어났는가에 중점을 두며, 사건현장의 인터뷰를 통해 극적인 요소나 시각적인 요소 등 사건발생의 묘사를 강조한다. 반면에 주제중심 프레임은 사건발생에 대한 사회구조, 역사적 배경 등 추상적인 상황에 이슈를 위치 지우는 보도의 틀로서 그러한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에 중점을 두어 보도하는 방식이다(김호순, 1998; 양정혜, 2001; 김선남, 2002). 다시 말해, 뉴스의 보도형식이 다양한 사회구조적 맥락 속에서

미 쇠고기 수입과 촛불시위라는 쟁점의 심층적인 원인진단 및 대안제공이 포함된 뉴스기사의 경우이다. 또한 일화+주제 중심적 프레임으로는 사건 중심적 혹은 주제중심유형이 명확하게 어느 한쪽으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 혹은 두 가지 유형이 혼재되어진 경우이다(김선남, 2002).

내용적 측면에서의 프레임 판별기준은 보도뉴스에 대한 핵심주제어를 그 텍스트의 프레임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핵심주제는 텍스트에서 가장 두드러진 아이디어로서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전체적인 의미를 규정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양정혜, 2001). 따라서 본 연구는 뉴스내용의 프레임 요소를 미리 선택하여 유형화한 후에 내용을 분석한 것이 아니라, 뉴스 텍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서 선택성과 현저성이 강조된 의미를 중심으로 반복되어지고 유사한 형태로 핵심주제어를 포함시켜 프레임 유형을 추출하였다. 그 결과 총 769개 뉴스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8개의 뉴스 프레임 유형을 판별해냈다.¹⁷⁾

① 책임귀인 프레임

책임귀인 프레임(attribution of responsibility)은 미국 쇠고기 수입논란이 몰고 온 여러 가지 정책적 문제의 원인이나 책임을 규명하려는 노력에 관한 것이다. 이 프레임은 언론보도가 “미 쇠고기 수입논란에 따른 정부 당국자의 책임이나 해결의 책임을 규명하려는 노력을 하는가”, “누가 그 책임이 있다고 하는가”, “미국쇠고기 수입 협상과 관련된 법, 제도, 규정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가와 관련된 것이다.

② 인간흥미 프레임

인간흥미(human interest) 프레임은 사람들의 감성, 분노, 놀라움, 불안감

17) 신뢰도 검정을 위해 분석대상 기사의 약 15%인 105건의 기사를 신문사별로 35건씩 무작위로 표집하여 연구자를 포함한 대학생 분석자 세 명이 각각 코딩하고 분석자 상호간의 평균 일치도를 구한 결과 0.79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적 신뢰도 계수(차배근, 1990)는 사용하여 측정한 결과 종합 신뢰도 계수는 0.85로 산출되었다.

등의 감성적 측면을 묘사하는가를 분석하는 프레임이다. 즉 언론보도가 미 쇠고기 수입문제나 촛불집회 등과 관련한 사태의 이슈를 다루는 데 이러한 감성을 유발시키는 개인의 사적인 일화적 스토리나 영상, 그림, 사진을 제공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프레임이다.

③ 경제적 결과 프레임

미국쇠고기 수입과 촛불집회 등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부담과 손실과 관련된 프레임이다. 경제적 결과(economic consequence) 프레임은 미 수입쇠고기로 인한 직접적 피해가 개인, 집단, 조직 등에 미치는 결과이다. 달리 말하면, 언론보도가 “현재 또는 가까운 장래에 한우농가에 대한 손실 언급”, “한우와 돼지고기 유통 등 관련 산업의 피해 보도”, “촛불시위로 인한 청계천 주변 상가들의 경제적 손실 보도” 등과 같은 내용이 경제적 결과 프레임에 대한 판단기준이다.

④ 권위주의적 정책실행 프레임

미국쇠고기 수입 정책 그리고 촛불집회 등과 관련하여 정부의 권위주의적이고 일방적인 법 집행의지, 강력한 조치, 위협적인 메시지 등과 관련된 프레임이다. “정부 쇠고기 수입 감행”, “미 쇠고기협상 철저히 비공개”, “장관고시 강행” 등의 보도와 “촛불시위대 강력진압”, “촛불집회 참가자 선별 처벌”, “경찰 전담 수사팀 구성” 그리고 연행, 구속, 사법처리와 관련된 메시지 등을 담고 있으면 권위주의 정책실행 프레임으로 판정하였다.

⑤ 국민건강 프레임

국민건강 프레임은 미 쇠고기 수입이 국민의 건강위험을 언급하는 프레임이다. 개인이나 집단 그리고 국민의 직접적인 건강에 대한 우려나 생명을 위협하는 안전성과 관련된 프레임으로 규정하였다. 즉, 보도뉴스가 “미 쇠고기로 인한 인간 광우병”, “대통령과 정책 당국자가 미 쇠고기 안정성이나 우려”,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로 규정돼 있는 위험 부위”, “주저앉는 소

(Downer Cow)의 도축”, “미 쇠고기 30개월 미만 수입” 등에 대한 언급이 국민 건강 프레임의 판단기준이 되었다.

⑥ 대항 프레임

대항 프레임은 권위주의적 정책시행, 의지표현, 행동에 반사적으로 나타나는 집단적 행동, 의사표현 등의 언론뉴스 프레임을 의미한다. 뉴스기사에 미 쇠고기 수입과 촛불집회에 대하여 “네티즌들과 국민들의 자발적 촛불시위 참가”, “수입쇠고기 반대시위”, “미 쇠고기 유통저지”, “미 쇠고기 추방 노·사 공동선언”, “촛불집회 폭력진압 규탄대회”, “항의시위”, “단식투쟁”, “분신자살” 등이 포함되어 있으면 대항 프레임으로 규정하였다.

⑦ 민주적 합의 프레임

민주적 합의 프레임은 미 수입쇠고기 관련 문제와 촛불집회 논란과 관련된 집단 간의 대화, 합의, 조정의 필요성과 중용 등을 의미하는 프레임이다. 구체적으로 정부와 시민단체, 정부와 국민 또는 정부와 한우농가, 한국정부와 미국정부간의 대화와 합의를 중용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거나 미 쇠고기 논란과 촛불시위 사태해결을 위한 민주적인 대화, 합의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을 경우에 민주적 합의 프레임을 지니는 것으로 보았다.

⑧ 정책홍보 프레임

정책홍보 프레임은 뉴스보도가 객관적이거나 중립적인 보도가 아닌 특정 취재원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거나 보도하는 프레임이다. 특정 취재원이란 미 쇠고기 수입논란과 촛불집회 등과 관련하여 시민단체나 국민의 주장이 아닌, 주로 한국정부 또는 미국정부 정책이나 입장을 대변한 보도이다. 미 수입쇠고기의 광우병에 대한 미국정부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거나 촛불집회에 대한 반대 또는 집회 참가자들의 처벌 등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뉴스보도 등을 정책홍보 프레임으로 판단하였다.

4. 연구결과

먼저 미 수입쇠고기 논란과 관련한 신문사별 기사유형을 간단히 살펴보면, 분석대상 신문 모두 스트레이트 뉴스와 기획·특집 보도기사가 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칼럼, 독자·기고 그리고 인터뷰기사는 매우 미미한 비율로 조사되었다(<표 1> 참조).

먼저 『조선일보』의 경우, 발생한 사건을 전달하는 스트레이트성 뉴스의 비율(83.1%)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의견기사인 사설(11.0%)의 비율도 세 신문 가운데 대체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조선일보』는 의견기사인 사설의 비율이 다소 높은 원인은 미 수입쇠고기와 촛불집회에 대한 논란을 심도 있게 보도했다기보다는 주로 자국의 수입쇠고기 전면 개방을 요구하는 미국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한국 정부에 미 쇠고기 수입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이 다수이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더불어 수입쇠고기 논란과 관련한 기획·특집기사는 보도되지 않았다.

『한겨레신문』은 미 수입쇠고기 논란에 대한 기획·특집기사의 비율(20.9%)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획·특집기사는 제2시기가 시작된 5월 3일부터 8일까지 일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보도되었는데, 이는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에 따라 앞으로 발생할 국가 경제의 악영향과 국민건강

<표 1> 미 수입쇠고기관련 신문사별 기사유형 단위: 건수(%)

기사 유형 \ 신문	조선일보	한겨레	강원일보	합계
뉴스	196(83.1)	283(68.0)	105(89.7)	584(75.9)
사설	26(11.0)	20(4.8)	2(1.7)	48(6.3)
칼럼/시론/논단	5(2.1)	11(2.7)	5(4.3)	21(2.7)
기획/특집	0(0)	87(20.9)	3(2.6)	90(11.7)
독자/기고	8(3.4)	13(3.1)	2(1.7)	23(3.0)
인터뷰	0(0)	2(5)	0(0)	2(3)
기타	1(4)	0(0)	0(0)	1(1)
합계	236(100.0)	416(100.0)	117(100.0)	769(100.0)

강에 대한 안전성을 우려한 ‘성난 민심’을 특집기사로 보도한 결과이기 때문이었다.

마지막으로 『강원일보』는 스트레이트 기사(89.7%)가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미 수입쇠고기 문제와 관련하여 의견기사인 칼럼·시론·논단기사(4.3%)로 조사되어 중요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보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단순한 사건 전달성 기사를 주로 보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1) 미 쇠고기 수입논란 프레임 구성

(1) 형식적 측면에서의 프레임 분석

미 쇠고기 수입 논란과 촛불시위 보도를 형식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일화 중심적 프레임(77.0%)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이어서 주제 중심적 프레임(19.0%), 그리고 일화+주제 중심적 프레임(4.0%) 순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먼저 신문사별 특징을 살펴보면, 『한겨레신문』의 주제 중심적 프레임 비율이 31.0%, 그리고 일화 중심적 프레임 비율이 66.3%로 나타났다. 『한겨레신문』의 경우, 주제 중심적 프레임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는 의미는, 한·미 쇠고기 수입협상과 관련하여 수입쇠고기 논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인지, 국민적 촛불시위가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수입쇠고기로 피해를 입게 되는 한우농가와 관련 산업 전반에 걸친 문제점과 해결책에 관한 심층적인 보도가 진행되었다고 설명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미 수입쇠고기 논란과 관련하여 다각적인 측면에서 해설과 기획보도 등 체계적인 접근이 이루어진 결과라고 풀이할 수 있다.

『조선일보』와 『강원일보』의 경우, 일화 중심적 프레임 비율이 각각 90.3%와 88.8%로 나타났으며, 주제 중심적 프레임은 각각 3.8%와 6.8%로 대체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일화 중심적 프레임 비율이 높다는 의미는 미 수입쇠고기, 그리고 촛불시위와 관련하여 주로 사건이나 사고발생 등 주로 사회적 논란을

개인이나 집단의 문제로 묘사하거나, 또는 결과로서 드러난 사건에 초점을 맞추어 보도했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는 『조선일보』와 『강원일보』가 광우병 관련 미 쇠고기 수입과 촛불시위에 대한 사회적 갈등에 대한 집회나 시위 등 가시적인 사건에만 주된 관심을 할애하고, 갈등이 빚어지게 된 원인이나 동기에 대한 배경적 설명 등을 최소화한 것으로 거쉬와 슈미트(Gersh, 1992; Schmidt, 1993)가 주장한 갈등의 단계설에 대한 의미를 반증한다고 풀이할 수 있다.

또한 『조선일보』는 분석대상 신문 중, 일화+주제 중심적 프레임 비율(5.9%)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조선일보』가 미 수입쇠고기 논란과 촛불집회에 대한 보도를 하면서 사건사고나 원인 결과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보도 보다는 본질을 회피하는 의도로 미 쇠고기 수입 문제와 관련성이 낮은 사례를 자주 보도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표 2> 미 쇠고기 수입논란 보도 형식의 프레임 유형 단위: 건수(%)

프레임 \ 신문	조선일보	한겨레	강원일보	합계
일화중심	213(90.3)	276(66.3)	103(88.8)	592(77.0)
주제중심	9(3.8)	129(31.0)	8(6.8)	146(19.0)
일화+주제	14(5.9)	11(2.6)	6(5.1)	31(4.0)
합계	236(100.0)	416(100.0)	117(100.0)	769(100.0)

(2) 내용적 측면에서의 프레임 분석

미 수입쇠고기 보도 내용 중 가장 높은 프레임 보도건수를 차지한 분야는 네티즌들과 일반시민들의 정부 또는 보수언론에 대한 집단적 행위인 대항 프레임(25.2%), 광우병 논란에 대한 보도인 국민건강 프레임(14.9%), 그리고 미 수입쇠고기로부터 광우병 문제를 초래한 정부에 대한 책임귀인 프레임(14.3%) 순이었으며, 이들 세 분야가 전체 프레임 보도건수의 절반 이상(54.4%)을 차지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프레임 보도건수가 대체로 매우 낮은 분야는 미 수입쇠고기와 촛불시위 사태 해결을 위한 민주적 합의 프레임, 미 쇠고

기 수입 개방으로 인한 국가경제와 한우농가의 피해에 대한 경제적 프레임 그리고 광우병과 관련한 언론보도를 통해 한국과 미국정부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정책홍보 프레임으로서 대체로 낮은 비율(평균 6.7%)로 나타났다(<표 3> 참조).

가장 빈번하게 등장한 대항 프레임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권위주의에 대항하는 프레임이었으며, 권위주의 뉴스 프레임이 증가할수록 이 대항 프레임 역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항 뉴스 프레임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집행에 대하여 시민단체와 국민들이 반발하거나, 국민들의 촛불시위에 대한 정부와 경찰의 무분별한 진압방식에 대하여 반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도내용을 살펴보면, “쇠고기 협상무효 축산농민 7천여 명 집회”, “운수노조 미 쇠고기 운송저지 파업”, “경남 시민단체 미국산 쇠고기 불매운동”, 그리고 “폭력적 공권력 집행 규탄시위” 등이다. 특히 대항 프레임은 미 쇠고기 수입 주무부처인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해임안이 부결된 직후인 5월 23일부터 관보게재일은 6월 25일까지 촛불집회가 본격적으로 전국적 시위로 번지면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국민건강 프레임은 광우병 논란으로 인한 미 수입쇠고기가 국민에게 미칠 수 있는 건강위협에 대한 안전성 논란을 담고 있는 프레임이다. 이 프레임은 “미 쇠고기 급식거부”, “한국인 광우병에 취약”, “학교, 군대, 병원 등 미 쇠고기 급식중단”, “미 쇠고기 전수조사”, “원산지 단속” 등과 관련한 보도내용들이 보도되었다. 또한 국민건강 프레임은 쇠고기 안전성문제와 관련한 국민건강 프레임으로 특히 30개월 이상 미국 소 수입금지와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로 규정된 미국 쇠고기수입 논란, 주저앉은 소 도축금지, 그리고 육류사료의 먹이 제공금지 등 우리국민의 식생활의 안전성과 관련된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국민건강 프레임과 비슷한 비율로 보도된 책임귀인뉴스 프레임은 미국과 수입쇠고기 2차 협상이 시작된 2008년 4월 11일 이후, 부실 협상과정과 더불어 불합리한 협상결과가 국민에게 알려진 5월 23일까지 약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보도되었다. 책임귀인 프레임과 관련된 정부의 주된 책임은 미국과의

협상 전에 국회나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공청회 한 번 열리지 않았으며, 미국과의 협상을 진행하는 도중에 기본적인 국제법도 준수하지 않은 채, 퍼주기식 협상으로 돌리는 거시적인 관점으로 정부 당국자의 책임을 추구하고 있는 뉴스가 주로 보도되었다. 따라서 우리 정부 당국자와 협상팀의 준비부족과 협상능력, 그리고 시행착오에 대한 대처능력에 책임을 귀인시키고 있었다.

권위주의적 정책실행 프레임은 미 수입쇠고기와 관련하여 우리정부의 협상과정과 협상결과에 관한 보도로 미 쇠고기 수입 일방적 강행, 한국정부의 미국과 재협상 불가 선언, 장관고시 강행, 미국과 협상결과 철저히 비공개 등 정부의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협상 관련보도였다. 이와 더불어 불합리한 쇠고기 협상 결과에 반대하여 촛불시위 참가자 등 단체행동을 하는 학생, 시민단체, 그리고 국민을 상대로 “경찰의 쇠고기 촛불시위자 선별처벌 방침”, “촛불 1차 연행자 불구속”, “청와대 광우병 괴담 수사”, “이 대통령 불법시위 엄정대처” 등의 정부의 위협적인 메시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인간적 흥미 프레임은 미국산 쇠고기문제의 협상과정과 촛불시위 등과 관련하여 시민들이 분노하는 모습, 놀라움 그리고 불안감을 유발시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인간적 흥미 프레임은 처음으로 촛불시위가 진행되는 제2시기(5월 2일~5월 23일) 동안에 특히 많이 보도되었으며, 이어서 제3시기(5월 24일~6월 25일)에서도 자주 보도되었다. 이는 5월 중순 미국과 쇠고기 협상과정에서의 통역과 번역에 대한 오역 등 협상과정에 대한 문제점과 더불어 재협상, 그리고 수입고시 연기 등 한국정부와 야당·시민단체 간의 대화가 더딘 상황에서 많이 보도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산 수입쇠고기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인을 위해 맞춤형 쇠고기 생산 가능”, “일본 소 100만 마리 중 광우병 소 40마리, 미국 소 1억 마리 중 광우병 소 3마리 발견”,¹⁸⁾ “미국산

18)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홍하일 위원장은 미국에서 도축되는 1억 마리 소 가운데 3마리만 광우병에 감염됐을 뿐이라는 정부와 일부 언론의 주장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도축되는 소의 0.1%만 광우병 검사를 하는데, 거기서 3마리가 나왔다면 전수검사를 했을 때 3천 마리가 나온다는 뜻”이라며 “일본의 경우 전수검사를 했을 때 40마리가 나온 것으로 미국 소보다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으며, 오히려 더 광우병 소에

쇠고기 연령제한 없이 수입”, 그리고 “청와대 점심, 미국산 쇠고기 메뉴로” 등이 보도되었다. 이와 같은 보도는 미 쇠고기 수입에 대한 중요한 사회적 갈등 문제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보도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접근 보도하여 합리적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뉴스들이다.

정책홍보 프레임은 미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미국정부와 한국정부의 정책 지지와 홍보, 그리고 촛불 집회와 관련한 우리정부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법집행에 대한 찬성 등을 주로 보도하면서 야당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거나 반대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정책홍보 프레임은 분석대상 신문 중 유일하게 『조선일보』에서만 발견된 프레임으로, 특히 미 쇠고기 제2차 수입타결 직후부터 촛불시위가 시작되기 전인 제1차시기 동안 집중적으로 보도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책홍보 프레임 내용을 살펴보면, “미 쇠고기 개방으로 국민 불안 없게 정부 홍보 강화”, “미 상무장관, 미 쇠고기는 안전”, “미 쇠고기 안전, 광우병이 사라지고 있다”, “미국인 먹는 쇠고기 한국수출”, “(야당의) 쇠고기 재협상 요구에 동조 하나”, “쇠고기 협상결과에 국정과제 우선순위 달렸다”, “쇠고기 반대하는 나라에 미국 군대 왜 주둔시키나” 등 미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미국 정부 입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거나, 한국정부 미 수입쇠고기 전면개방에 대한 정당성을 촉구하는 내용이 많이 보도되었다.

경제적 결과 뉴스 프레임에서는 미 쇠고기 수입개방과 더불어 한우가격 폭락에 따른 한우농가, 미국산 갈비 값 인상으로 인한 국민경제 부담, 그리고 정부의 국내 축산업 지원 대책으로 인한 국가 경제적부담의 내용이 주류를 이루었다. 또한 수입쇠고기 개방과 더불어 미 농축산업계의 유전자 변형 옥수수 개방 요구에 대한 한국 농민의 경제적 손실 등의 뉴스가 주로 보도되었다.

마지막으로 민주적 합의 프레임은 정부와 국민 또는 여당과 야당 그리고 경찰과 촛불시위 참가자들 간의 민주적 대화나 합의를 중용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프레임이다. 민주적 합의 프레임은 권위주의 뉴스 프레임, 대항

대한 통제와 관리가 더 잘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함(김미영, 『인터넷한겨레』, 2008.5.2).

<표 3> 내용적 측면에서의 프레임 유형 단위: 건수(%)

프레임 \ 신문	조선일보	한겨레	강원일보	합계
책임귀인	25(10.6)	76(18.3)	8(6.8)	109(14.3)
경제적 결과	11(4.7)	16(3.8)	21(17.9)	48(6.2)
권주의의	12(5.1)	67(16.2)	7(6.0)	86(11.2)
대항	19(8.0)	130(31.3)	45(38.4)	194(25.2)
국민건강	42(17.8)	64(15.4)	9(7.7)	115(14.9)
인간적 흥미	34(14.4)	26(6.3)	12(10.2)	72(9.4)
민주적 합의	9(3.8)	25(6.0)	13(11.2)	47(6.1)
정책홍보	60(25.4)	0(0)	0(0)	60(7.8)
기타	24(10.2)	12(2.9)	2(1.7)	38(4.9)
합계	236(100.0)	416(100.0)	117(100.0)	769(100.0)

* $\chi^2=43.214$, $df=8$, $p < .005$

뉴스 프레임과 대칭선상에 있는 뉴스 프레임이다. 보도내용을 살펴보면, 야당과 시민단체에서는 한미 쇠고기 굴욕협상을 다시 해야 한다는 반복된 주장이 제기되었고, 미국 내 한인단체들도 한국정부와 국민들 간에 갈등보다는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학계에서도 쇠고기 재협상은 국제법상 합당하다는 의견으로, 그리고 국민의 78%가 쇠고기 협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재협상 결단을 촉구하였다.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문 발표(5월 22일)를 통하여 광우병 파동 등 새 정부 출범 이후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다시 힘을 모아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며, 동시에 17대 국회 임기 내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비준안 처리를 촉구하는 등 사실상 촛불집회를 철회하고 대화로 문제를 풀 것을 제의하기에 이르렀다.

2) 시기별 프레임 형성

미 수입쇠고기 문제와 관련한 사회적 갈등은 광우병 논란 등과 더불어 MBC의 <PD수첩> 방송에 따른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 그리고 광고 불매운

<표 4> 형식적 측면에서의 프레임 유형 단위: 건수(%)

프레임 \ 시기별	구분	제1시기 (4.11~5.1)	제2시기 (5.2~5.23)	제3시기 (5.24~6.25)	제4시기 (6.26~8.1)	합계
일화 중심적 프레임	조선일보	14(12.7)	29(26.4)	45(40.9)	22(20.0)	110(100.0)
	한겨레신문	15(25.0)	27(45.0)	12(20.0)	6(10.0)	60(100.0)
	강원일보	9(36.6)	0(0)	8(30.8)	9(36.6)	26(100.0)
	계	38(19.4)	56(28.6)	65(33.2)	37(18.9)	196(100.0)
주제 중심적 프레임	조선일보	6(1.9)	22(9.6)	38(36.5)	32(30.8)	104(100.0)
	한겨레신문	17(5.2)	101(30.8)	131(39.9)	79(24.1)	328(100.0)
	강원일보	7(7.6)	19(20.6)	37(40.2)	29(31.6)	92(100.0)
	계	30(6.1)	142(29.1)	206(42.2)	110(22.5)	488(100.0)
일화+주제 중심	조선일보	4(8.7)	13(28.3)	15(32.6)	14(30.4)	46(100.0)
	한겨레신문	3(10.3)	14(48.3)	8(27.6)	4(13.8)	29(100.0)
	강원일보	0(0)	2(20.0)	7(70.0)	1(10.0)	10(100.0)
	계	7(8.2)	29(34.1)	30(35.3)	19(22.3)	85(100.0)

동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과 등 정치·사회적 논란으로 이어져 사회적 파장이 컸다. 따라서 미 쇠고기수입과 관계한 보수신문과 진보신문, 그리고 지방신문의 보도 프레임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보도내용을 시기별로 구분한 다음, 형식과 내용면에서 프레임을 살펴보았다.

(1) 형식적 측면에서의 프레임 분석

미 쇠고기수입 논란에 대한 형식적 프레임에 대한 시기별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표 4> 참조). 먼저 제1시기의 경우, 일화적 중심 프레임의 비율(19.4%)이 주제 중심 프레임(6.1%)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언론이 한국과 미국 정부당국자 간의 제2차 쇠고기 협상의 재개와 초기 협상과정에 대하여 사건 중심적 보도를 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제3시기의 경우, 일화적 중심 보도(33.2%)와 주제적 중심 보도(32.62%)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4시기를 제외하면 제1시기부터 제3시기 주제 중심적 프레임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미국

수입쇠고기에 대한 보도가 초기의 주관적이고 관조적인 입장에서 후기로 갈수록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보도가 진행되었다고 풀이할 수 있다.

특히 시간이 흐를수록, 『한겨레신문』과 『강원일보』는 수입쇠고기 논란과 촛불집회에 대하여 심층적인 기획보도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조선일보』의 경우에는 오히려 사건 중심적 보도인 일화적 프레임의 수가 다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한겨레신문』과 『강원일보』와는 달리 『조선일보』는 시간이 흐를수록 미국 수입쇠고기 논란과 촛불집회에 대한 보도가 피상적이며 특정사건을 바탕으로 극적인 요소와 시각적 요소를 중심으로 보도하고 있다고 풀이할 수 있다.

(2) 내용적 측면에서의 프레임 분석

미국 쇠고기 수입논란에 대한 뉴스 프레임을 4시기별로 나누어 각 시기별로 신문의 보도내용과 특성을 구체적으로 비교분석했다(<표 5> 참조).

제1시기는 미 수입쇠고기 2차 협상 개시일(2008.4.11)부터 <PD수첩> 방영 직후인 5월 1일까지의 기간이다. 이 기간 동안에 수입쇠고기 문제와 관련하여 한·미 쇠고기 2차 협상타결(2008.1.18)과 한·미 정상회담(2008.4.19) 등에 대한 주요 언론보도가 있었다. 이 시기에 세 신문을 통하여 총 54건의 미 쇠고기 관련 뉴스가 보도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프레임 항목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분야는 인간적 흥미 프레임(24.1%), 책임귀인 프레임(16.7%), 그리고 경제적 프레임(13.0%) 순으로 나타났다. 각 프레임의 대표적 사례를 살펴보면, 인간 흥미 프레임으로 미국 쇠고기의 안전성을 강조하기 위해 “11만 유학생과 280만 교포가 먹는 미 쇠고기”(『조선』, 2008.5.1) 등의 내용으로 보도되었다. 경제적 프레임은 “미국쇠고기 개방협의로 한우가격 폭락조짐”(『한겨레』, 2008.4.21) 등 주로 미국 쇠고기 수입으로 인하여 한우 가격과 관련된 내용들이 주로 많았다. 이 시기에 책임귀인 프레임은 “쇠고기 검역주권을 포기한 정부에 대하여 청문회를 추진”(『한겨레』, 2008.5.1) 등 미 쇠고기 개방에 따른 정부와 정부 당국자의 책임을 추궁하는 내용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제2시기는 미국과 한국정부 당국자 간에 미 수입쇠고기 2차 협상타결 직후,

<표 5> 시기별 미 수입쇠고기 뉴스 프레임 구성(단위 %)

프레임 유형 \ 시기별	신문 구분	제1시기 (4.11~5.1)	제2시기 (5.2.~5.23)	제3시기 (5.24~6.25)	제4시기 (6.26~8.1)	합계
책임귀인	조선일보	0	13	6	6	25
	한겨레	7	34	26	9	76
	강원일보	2	2	3	1	8
	계	9(8.3)	49(45.0)	35(32.1)	16(14.7)	109(14.2)
인간적 흥미	조선일보	7	16	7	4	34
	한겨레	6	13	6	1	26
	강원일보	0	4	8	0	12
	계	13(18.1)	33(45.8)	21(29.2)	5(6.9)	72(9.4)
경제적 결과	조선일보	2	1	4	4	11
	한겨레	0	5	9	2	16
	강원일보	5	4	5	7	21
	계	7(16.4)	10(20.8)	18(37.5)	13(27.1)	48(6.2)
권위주의	조선일보	0	7	2	3	12
	한겨레	0	18	35	14	67
	강원일보	0	1	0	6	7
	계	0(0)	26(36.0)	37(37.2)	23(26.7)	86(11.2)
국민건강	조선일보	2	14	20	6	42
	한겨레	3	21	15	25	64
	강원일보	1	1	3	4	9
	계	6(5.2)	36(31.3)	38(33.0)	35(30.4)	115(15.0)
대항	조선일보	4	4	4	7	19
	한겨레	2	36	59	33	130
	강원일보	1	5	20	19	45
	계	7(3.6)	45(23.2)	83(42.8)	59(30.4)	194(25.2)
민주적 합의	조선일보	1	1	6	1	9
	한겨레	3	3	11	6	23
	강원일보	2	1	10	2	15
	계	6(12.8)	5(10.6)	27(59.6)	9(17.0)	47(6.1)
정책홍보	조선일보	4	8	23	25	60
	한겨레	0	0	0	0	0
	강원일보	0	0	0	0	0
	계	4(6.7)	8(13.3)	23(38.3)	25(41.7)	60(7.8)
기타		2(5.3)	7(21.1)	11(28.9)	18(47.4)	38(4.9)
총합		54(7.0)	219(29.3)	293(37.6)	203(26.1)	769(100.0)

이에 반대하는 최초의 소규모 촛불시위가 시작되는 2008년 5월 2일부터 촛불시위가 범국민적 가두시위로 확산되는 5월 24일까지에 해당되는 시기이다. 제2시기에는 대통령탄핵 100만 명 서명돌파(2008.5.4), <PD수첩> 방영 결과에 대한 언론중재 위원회의 반론보도결정(2008.5.19), 그리고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 발표(2008.5.22) 등 주요사건들이 발생한 시기였다. 이 기간 동안 전체 기사의 30.6%에 해당되는 235개의 뉴스기사가 보도되었으며, 대항 프레임(19.1%), 책임귀인 프레임(20.9%)과 국민건강 프레임(15.3%) 등이 주로 사용되었다. 대항 프레임은 네티즌들의 쇠고기 수입반대를 비롯하여 “이명박 정부 불신, 1만여 명 성난 촛불”(『한겨레』, 2008.5.3) 등 정부의 비합리적인 쇠고기 정책집행에 대항하는 메시지가 많이 발견되었다. 이와 동시에 문제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려는 메시지도 많이 보도되었다. 미국과의 졸속협상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대통령 탄핵서명에 100만 명 참가”(『한겨레』, 2008.5.5) 등의 메시지가 많았다. 이 시기에 보도된 국민건강 프레임 내용은 “한국인 광우병에 취약”(『한겨레』, 2008.5.9) 등이 보도되었다.

제3시기는 조·중·동에 대한 네티즌들의 광고 불매운동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였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 대국민사과 특별 기자회견(2008.6.19), 그리고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내용공개(2008.6.21) 등이 발생한 시기였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국회 해임안이 부결된 날로부터 제4기 이전까지의 단계로 범국민 촛불집회와 관련된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 시기 동안 총 289건의 뉴스기사가 보도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정운천 장관에 대한 국회 해임안 부결로 촉발된 “약대 대학생들 시위 참가”(『한겨레』, 2008.5.8), “미국산 쇠고기 고시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한겨레』, 2008.5.30), “시민단체·누리꾼 10만 명, 쇠고기 헌법소원 청구”(『한겨레』, 2008.6.6)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다양한 부류의 국민들에 의한 광범위한 저항(29.8%)과 관련된 보도가 중심을 이루었다. 국민들의 광범위한 촛불집회와 관련하여 정부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거세어지자, 이에 대한 정부의 권위주의적(11.1%) 대항방식에 대한 보도 수도 많았다. 권위주의적 보도내용으로는, “촛불 1차연행사 전원 불구속 입건”(『한겨레』, 2008.5.27) 등 촛불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인 법 집행과 강력한 조치 등의 내용이 많이 보도되었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미 쇠고기 수입논란에 대한 사태해결을 위한 정부와 국민간의 대화를 중용하는 민주적 합의 프레임(9.7%)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 70%가 재협상”(『한겨레』, 2008.5.26), “미국은 쇠고기 재협상 받아들여야”(『한겨레』, 2008.6.5), “강원 대책위 쇠고기 재협상 촉구”(『조선』, 2008.6.9) 등의 메시지가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각 신문사의 관심이 정부와 국민의 일방적 대항보도보다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대화를 통한 쇠고기 문제의 해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4시기의 기간 동안에 발생한 쇠고기 수입과 관련된 주요사건은 쇠고기 협상내용 관보게재(2008.6.26), 보수언론에 대한 광고 불매운동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법결정(2008.7.2), 그리고 국회 쇠고기 국정조사 시작(2008.7.14) 등이 있었다. 이 시기는 이전 시기와 비교할 때, 정부 당국자에 대한 책임귀인 프레임(4.1% 감소)과 인간적 흥미 프레임(4.8% 감소)이 다소 줄어들고 동시에 상대적으로 국민건강 프레임(3.8% 증가)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우병으로 인한 미 수입쇠고기의 안전성 문제는 촛불시위 참가자 자신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등의 가족의 건강과 직접 관련되는 민감한 식생활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자주 보도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또한 국민건강 프레임은 가족의 건강권을 주장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범국민 촛불시위를 합리화할 수 있는 요소라고도 설명할 수 있다. 특히 이 시기에 주목할 만한 점은 정책홍보 프레임(12.9%)의 비율이 이전 시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정책홍보 프레임은 미국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미국과 한국정부의 정책을 지지하거나 정부의 일방적인 권위주의 프레임을 홍보하는 프레임을 의미한다. “쇠고기 고시, 대통령이 직접 국민 설득 나서야”(『조선』, 2008.6.25), “미국 쇠고기=광우병 날조 TV 어찌해야 하나”(『조선』, 2008.7.10) 등이 보도되었다. 특히 『조선일보』는 광우병에 대한 안전성을 강조하면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무시한 채, 미 수입쇠고기에 대한 미국과 한국 두 나라 정부의 입장만을 일관성 있게 지지하는 보도를 하면서 정부정책

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신문사별 프레임 구성

미국산 쇠고기 수입논쟁에 대한 신문사별 뉴스 프레임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3> 참조). 먼저 신문사별 전체 보도 기사량을 살펴보면 『조선일보』가 236건(30.7%), 『한겨레신문』 416건(54.1%), 그리고 『강원일보』가 117건(15.2%)으로 나타나 『한겨레신문』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논쟁 관련보도를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쇠고기와 관련된 신문사별 뉴스 프레임의 특징을 살펴보면, 『조선일보』는 정책홍보 프레임(25.4%), 국민건강 프레임(17.8%), 그리고 인간적 흥미 프레임(14.4%)을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한겨레신문』은 대항 프레임(31.3%)과 책임귀인 프레임(18.3%)을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강원일보』는 대항 프레임(38.4%), 경제적 프레임(17.9%), 그리고 민주적 합의 프레임(11.2%) 순으로 나타났다.

신문사별 미 쇠고기 논란과 관련된 뉴스 프레임을 살펴보면, 『조선일보』의 경우 정책홍보 프레임(25.4%)과 국민건강 프레임(17.8%)을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홍보 프레임은 오직 『조선일보』에서만 발견된 프레임으로 수입쇠고기 논란과 관련 미국정부 입장과 한국정부 입장을 지속적으로 옹호하는 보도를 했을 뿐만 아니라, 촛불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한 한국정부의 논조를 지지했던 뉴스 프레임이다. 이와 더불어 『조선일보』가 국민건강 프레임을 자주 보도한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산 수입쇠고기는 세계인이 즐겨먹는 쇠고기이며 3억이 넘는 미국인뿐만 아니라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한인 교포와 유학생들이 안심하고 먹고 있는 쇠고기라는 점을 강조하는 등 미국쇠고기는 광우병과 관련 없이 매우 안전한 식품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보도하는 홍보성 기사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다시 말해 『조선일보』는 미 쇠고기 안전성과 관련된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등 논란의 본질적인 내용을 회피한 채, 미국 쇠고기는 무조건 안전하다는 다소 과장되고 왜곡된 논조를 주요의제

로 연관시켜 보도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조선일보』의 쇠고기 관련보도에서 홍보성 프레임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보수언론이 가지고 있는 보수적인 논조와 관련이 있다. 『조선일보』는 미 쇠고기 수입개방에 대한 명목상의 이유는 미국의 광우병위험 통제국 판정과 한국 소비자들의 혜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은 “국가적인 주주의제에 대해 무조건 보수적인 정부 쪽을 편드는 것”(성한표, 2008)이기 때문이다. 또한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조선일보』의 쇠고기=국가안보의 논리이다.¹⁹⁾ 즉 미 쇠고기 수입을 거부하면 FTA가 좌절될 확률이 높고, 어떤 형태로든 안보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쇠고기 개방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겨레신문』 대항 프레임(31.3%)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항 프레임은 장관결질, 내각 사퇴, 청문회, 파업, 농성, 촛불시위 등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집행에 따른 결과로 정치집단 또는 국민들의 집단적 의사 표현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겨레신문』은 미국 쇠고기 수입논란의 발생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려는 책임귀인 프레임(18.3%)이 높은 비율로 나타난 것을 고려할 때, 『한겨레신문』은 미 쇠고기 수입 논란과 관련해 발생에 따른 정부 당국자의 책임을 묻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한겨레신문』의 경우, 대항 프레임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한-미 FTA협상이 국익차원에서 불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한겨레신문』은 광우병 관련 미 쇠고기 수입을 지속적으로 반대했는데, 이는 FTA자체가 득보다는 실이 많을 뿐만 아니라, 미 쇠고기 수입으로 인한 국민건강에 대한 안정성 우려와 국내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기 때문²⁰⁾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강원일보』의 경우 대항적 프레임(38.4%)과 경제적 프레임(17.9%)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강원도가 한우를 많이 사육하는 지역으로서, 미국 쇠고기의 수입과 개방에 따른 지역

19) 송희영 칼럼, “민심 얻기를 포기하고, 대미관계나 챙겨라?”, 『조선일보』(2008.5.17), A30쪽.

20) “FTA 위해 검역주권 포기하나”(『한겨레신문』, 2008.4.18. 사설), 35쪽.

한우농가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강원지역의 축산경제 피해로 연결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수입쇠고기인 인한 최소한의 지역 경제의 손실에 따른 예방과 축산농가에 대한 정부의 경제적 지원책 보장 등을 요구하며, 농성과 촛불집회 참가 등을 통한 대항 프레임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시기별 신문사 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제2기부터 제3기까지 『한겨레신문』(65건)이 조선일보(17건)보다 책임귀인 프레임을 약 4배 정도 더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신문』은 책임귀인 프레임인 경우, 책임 있는 해당 정부 당국자나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문제의 원인과 과정 그리고 해결책을 제시하여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구체적인 문제 지적보다는 제3자의 의견만을 피상적으로 전달하여 보도하는 경우가 많았다.²¹⁾

이와 더불어 대항 프레임의 경우에도 『한겨레신문』(69건)으로 『조선일보』(9건)보다 7배 정도 더 많이 보도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겨레신문』의 경우 저항적 보도의 특징은 시위참가자 인물중심의 행위를 중심으로 자세히 기술하여 보도한 반면, 『조선일보』는 촛불집회에 관한 국민적 저항보도를 쇠고기 시위로 돌아온 반미단체들의 활동으로 묘사하는 등 촛불시위 자체를 반정부 시위로 묘사하여 보도하였다.

5. 결론 및 논의

2008년은 한국과 미국의 FTA(자유무역협정) 제2차 협상결과로 미국 쇠고기 수입개방에 따른 광우병의 논란과 정부의 수입쇠고기 정책에 반대하는 범국민적 촛불집회 등 사회적 논란이 격화된 시기였다. 본 연구는 미 쇠고기 관련 보도 프레임을 갈등적 보도 관점에서 중앙신문과 지방신문을 비교함으로써,

21) 예를 들면, “홍준표, 대운하 안 돼… 쇠고기 협상 정부가 실수”(2008.5.10), “노 전 대통령, 미국 쇠고기 개방은 현 정부 책임”(2008.5.10), “손학규, 쇠고기 재협상 안하면 중대결심”(2008.5.15) 등이 보도되었다.

프레임 간의 차이를 살펴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기존의 사회적 갈등 연구가 한두 이익집단 간의 갈등에 대한 내용분석 등 질적 차이에 집중한 반면, 본 연구는 네티즌, 신문과 방송, 정부 등이 개입된 범국민적 차원의 사회적 갈등에 대한 프레임 분석을 통해 양적 차이를 규명하고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를 토대로 중앙신문과 지역신문의 미 쇠고기 관련 보도를 프레임 분석함으로써, 신문사별 보도 특성에 대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는 의의를 가진다. 연구결과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 수입쇠고기 논란과 관련한 신문사별 기사유형을 살펴보면, 스트레이트성 뉴스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조선일보』의 경우, 비교대상 신문 가운데 쇠고기 수입과 관련된 의견기사인 사설의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조선일보』가 다른 비교대상 신문과는 달리 제2차 한-미 자유무역협상 초기부터 미국산 수입쇠고기 개방을 적극 지지하는 보도로 일관해왔으며, 이러한 신문사의 논조는 자사의 사설을 통하여 나타났다. 『한겨레신문』의 경우, 기획·특집기사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한겨레신문』은 기획·특집 기사를 통해 안전성 확보 없이는 미 수입쇠고기 수입과 개방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미국 쇠고기가 국민경제에 미칠 영향과 한우농가에 대한 경제적 피해를 체계적으로 심도 있게 보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강원일보』의 경우, 단순전달 뉴스의 비율이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언론보도의 형식적인 측면에서 『조선일보』는 일화 중심적 프레임 비율이, 그리고 『한겨레신문』과 『강원일보』는 주제 중심적 프레임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내용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미 수입쇠고기 논란과 관련하여 책임귀인 프레임보다는 국민의 대항적 프레임이 더 무게를 두고 보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항 프레임 보도는 “운수노조 미 쇠고기 유통저지”, “전교조 미 쇠고기 반대 단식”, “축산농민 자살” 등 미 쇠고기 수입과 개방에 대한 국민적 반대의사를 표출한 내용이 주류를 이루었다.

셋째, 시기별로 강조된 프레임의 특성을 살펴보면, 제1시기에는 인간적 흥미 프레임과 책임귀인 프레임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언론이 특정 뉴스

소개에 대하여 일반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하기 위해 미 쇠고기 수입관련 보도를 인간 흥미적 관점에서 보도한 다음, 미 수입쇠고기가 장차 국민의 음식문화와 경제 그리고 한우 농가 등에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로 관계당국의 협상과정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프레임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따라서 언론은 중요한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국민의 관심을 유도하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2기와 제3기로 갈수록 저항적 프레임과 국민건강 프레임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만불출에 대한 저항적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보도하는 대항 프레임과 더불어 기존의 건강과 관련된 국민건강 프레임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넷째, 신문사별 뉴스 프레임의 특징을 살펴보면, 『조선일보』의 경우 정책홍보 프레임의 비율이 높았으며, 『한겨레』와 『강원일보』는 대항적 프레임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의 정책홍보 프레임은 미 수입 쇠고기가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다는 미국정부의 주장만을 지속적으로 지지하며 반복 보도한 뉴스 프레임이다. 또한 다수인 국민의 여론을 무시한 채, 안전한 미 수입쇠고기를 반드시 개방해야 된다는 정책과 동시에 촛불집회는 불법이라는 한국정부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보도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강원일보』의 경우, 경제적 프레임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한우사육지의 특성상, 미 쇠고기 개방에 따른 한우농가와 지역 축산경제에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에 따른 우려로 풀이할 수 있다.

사회적 갈등적 이슈는 공통적인 현실에 대해 갈등 당사자들의 상이한 인식과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사회적 갈등에서의 언론은 분쟁사태에 대한 공정한 보도, 공동체 의식형성, 토론의 장 마련, 갈등의제의 명확한 정리, 조정자로서 역할 사회적 언론의 역할이 필수적이다(권혁남, 2001). 미 쇠고기 수입문제는 광우병과 관련된 국민건강과 한우농가 피해 등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의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정부와 국민 간의 갈등을 조정해야 할 언론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미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 조정자로서 공정하게 수행해야 될 언론은 기본적 역할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선일보』의 경우, 정책홍보 프레임으로서 국민적 요구와는 대조적으로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을 요구하는 미국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미 쇠고기 수입 타당성을 주장하는 한국 정부당국자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강원일보』의 경우, 한우농가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강원지역의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으로 경제적 결과 프레임에 대한 보도비율이 높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의견성 기사인 사설과 칼럼 등 비율이 매우 낮았으며, 사건중심의 뉴스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분석대상 신문들이 대항적 프레임과 인간적 흥미 프레임 보도에 치중한 나머지 정부당국자의 책임귀인에 대한 보도비율이 전반적으로 낮다는 점은 갈등적 상황에서 언론의 역할을 다시 생각해야 할 부분이다. 왜냐하면 정부에 대한 책임규명 보도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국가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 쇠고기 수입개방 보도를, 보다 심층적이고 기획적인 기사보다는 있는 사건을 그대로 보도하고 전달함으로써 언론의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정도로 그치기 때문이다. 이는 촛불시위가 시작되며 범국민적 운동으로 번져 국민의 관심사가 촛불집회에 쏠렸다고는 하지만, 언론의 입장에서 촛불집회가 발생하게 된 근본원인과 사태 해결을 위한 책임귀인과 민주적 합의 프레임이 현격히 줄어 갈등적 상황에서 합의를 중용할 수 있는 언론보도가 부족하였다고 설명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시간이 흐를수록 정책홍보 면에서 촛불집회 등으로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 정부와 국민 간의 화합을 위해, 언론보도보다 권위주의적인 정부정책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언론보도보다는 민주적인 대화와 합의를 유도할 수 있도록 보도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미 쇠고기 수입개방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자가 누구이며, 차후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어떠한 일들이 선행되어야 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당국이 어떤 점을 시정하고 보완해야 할 것인지 지적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언론이 정작 피해를 본 한우농가나 잠재적인 피해자인 국민을 위한 대민 커뮤니케이션 통로(通路)로서의 역할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정보 전달을 위한 지면을 확대해야 한다는 개선할 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대한 한계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프레임 분석에 대한 명확한 이론이 확립된 상태에서 진행된 연구가 아니라, 기존에 연구된 이론을 바탕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연구방법이 제한적일 수 있다. 또한 미 수입쇠고기 논란에 대한 보도시기 구분에 있어 시기구분을 특정한 사건을 중심으로 구분한 부분이나 분석유목의 경계에 대한 구분은²²⁾ 연구자의 다소 주관적 판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는 기존연구에서도 표준이 될 만한 기준이 제시되지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다소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구분지를 수밖에 없었다. 마지막으로 분석대상 신문이 적어 좁은 범위 내에서 프레임을 모색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차후 연구에서는 미 수입쇠고기 논란에 대한 보다 다양한 신문들과 방송 그리고 인터넷을 포함하는 폭넓은 프레임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며, 더불어 수용자의 인지적 부분까지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Ⅰ 참고문헌

- 강내원 (2002). 사회갈등보도 기사의 비판적 읽기: 언론의 새만금 간척 사업 프레임에 대한 갈루아 래터스 분석. 『한국언론학보』, 46권 4호, 46~73.
- 강원도청 농정산림국 축산업 축종별 실태 (2008.9.17). Available:
http://www.provin.gangwon.kr/dep/part08/page/main.html?hb_CatePK=74&hb_ArticlePK=455
- 강혜주 (2006). 신문사의 이념에 따른 국제뉴스 프레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2) 예를 들면, ‘인간적 흥미 프레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무엇이며, 범위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등을 의미한다.

- 권혁남 (2001). 사회갈등에 관한 보도 및 시사토론 프로그램의 내용분석. 『한국언론학회』, 2000년 세미나. 사회갈등과 언론의 역할, 27~52.
- 김동규 (2000). 사회갈등에 관한 보도 및 시사토론 프로그램의 내용분석. 『2000 한국언론학회 세미나』, 53~82.
- 김미영 (2008.9.17). 반미선동이 아니라 ‘국민 건강’ 걱정이다. 인터넷 한겨레. Available: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85446.html.
- 김선남 (2002). 매매춘 관련 TV 뉴스의 프레임 분석. 『한국방송학보』, 16권 2호, 41~76.
- 김원용·이동훈 (2005a). 핵폐기장 중심 원자력 관련 보도에 나타난 매체별 갈등보도 프레임 비교연구. 『한국방송학보』, 19권 4호, 168~211.
- _____ (2005b). 언론보도의 프레임 유형화 연구: 국내 원자력관련 신문보도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9권 6호, 166~197.
- 김호순 (1998). IMF 체제의 경제위기와 텔레비전 뉴스 담론: 금 모으기 운동에 대한 뉴스 프레임을 중심으로. 『방송연구』, 여름호, 138~163.
- 나미수 (2004). 핵폐기장 유치에 대한 텔레비전 뉴스 프레임 분석: KBS, MBC의 전국 및 지역 뉴스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26호, 157~206.
- 박경숙 (2002). 집단 갈등 이슈의 방송뉴스 프레임 분석: 의약분업 뉴스 프레임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6권 2호, 310~340.
- 성한표 (2008). 정부편들기 치명적 언론. 『한겨레신문』(2008.5.14), 6쪽.
- 양정혜 (2001). 사회갈등과 의미구성하기. 『한국언론학보』, 45권 2호, 248~315.
- 원만해·채백 (2007). 청선상 고속철도 관통 보도에서 나타나는 중앙지와 지역지의 뉴스 프레임 비교연구. 『한국언론학보』, 51권 1호, 199~228.
- 이준웅 (2001). 갈등적 이슈에 대한 뉴스 프레임 구성방식이 의견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46권 1호, 441~482.
- 장석재 (2002). 사회적 갈등보도에 나타난 언론프레이밍 효과: 의약분업 보도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용호 (1987). 사회운동과 언론. 『현상과 인식』, 41호, 37~72.
- 정수연 (2005). 미디어의 장애인 관련 보도 프레임 분석: 2005년 장애인의 날 특집 프로그램과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차배근 (1990). 『사회과학 연구방법』. 서울: 세영사.
- 한근태·송기인 (2005). 국내 신문의 환경이슈 보도에 대한 프레이밍 연구. 『한국방

송학보』, 19권 3호, 228~324.

- Baumgartner, F. R. & Jones, B. D. (1993). *Agendas and instability in American politic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ennett, W. L. (1988). *News: The politics of illusion, 2nd ed.* New York: Longman.
- Best, J. (1995). *Images of issues: Typifying contemporary social problems*. New York: Aldine de Gruyer.
- Capella, J. N. & Jamieson, K. H. (1997). *Spiral of cynicism*. New York: Oxford University of Press.
- Entman, R. (1989). *Democracy without citizens: Media and the decay of American politic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1993). Framing: Toward clarification of fractured paradigm. *Journal of Communication*, 43(4), 51~58.
- Gamson, R. M. & Modigliani, A. (1989). Media discourse and public opinion on nuclear power: A constructionist approach.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5(1), 1~37.
- Gamson, W. A. (1992). *Talking poli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ersh, D. (1992). Promulgating polarization: Study finds media coverage of women minorities tends to be oversimplistic, which exacerbates social strains. *Editor and Publisher*, Vol. 125, No. 41, 30~33.
- Gitlin, T. (1980). *The whole world is watching*. Berkely: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Iyengar, S. (1991). *Is anyone responsible? How television frames political issu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Iyengar, S. & Simon, A. (1993). News coverage of the Gulf crisis and public opinion: A study of agenda-setting, priming and framing. *Communication Research*, 20(3), 365~383.
- Nelson, T. E. & Oxley, Z. M. (1999). Issue framing effect on belief importance and opinion. *The Journal of Politics*, 61(4), 1040~1067.
- Nelson, T. E. & Oxley, Neuman, W. R., Just M. R. & Crigler, A. N. (1992). *Common knowledg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Pen, Z. & Kosicki, G. M. (1993). Framing analysis: An approach to news discourse. *Political Communication*, 10, 55~75.
- Price, V., Tewksburg, D. & Powers, E. (1997). Switching trains of thought: The impact of news frames on readers' cognitive response. *Communication Research*, 24(5), 481~506.
- Rhee, J. W. (1997). Strategy and issue frames in election campaign coverage: A social cognitive account of framing effects. *Journal of Communication*, 47, 26~48.
- Schmidt, D. (1993). Public opinion and media coverage of labor unions. *Journal of Labour Research*, Vol. 14, No. 2, 151~164.
- Shah, Dhavan V., Domke, D. & Wackman, D. B. (1997). Values and the vote: Linking issue interpretations to the process of candidate choice.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74(2), 357~387.
- Sheufele, D. (1999). Framing as a theory of media effects in the construction of social reality: Construct accessibility as an explanatory variable. *Communication Research*, 20(3), 436~471.
- Shomeaker, P. & Reese, D. R. (1996). *Mediating Message: Theories of Influences on Mass Media Contents*, New York: Longman; 김원용 (1997). 『미디어 사회학』. 서울: 나남.
- Snow, D. & Benford, R. (1989). Ideology, frame, resonance and participant mobilization. *International Social Movement Research*, 1, 197~217.
- Valkenburg, P. M., Semetko, H. A. & de Vreese, C. H. (1999). The effects of news frame on readers' thoughts and recall. *Communication Research*, 26(5), 500~569.

(투고일자: 2008.11.24, 수정일자: 2009.04.08, 게재확정일자: 2009.04.20)

A Comparative Analysis of News Frame on U. S. Beef Imports and Candlelight Vigils

Yang-June Im

Lecturer

(Dept. of Mass Communication, Kyoungsung Univ.)

This study explores the news frames on the U. S. beef imports and candlelight vigils covered by the two national dailies such as ChosunIlbo and the Hankyoreh Shinmun; the KwangwonIlbo, a local daily. The news frames extracted based on the models of Iyengar(1987), Semetko & Valkenburg(2000) and other researchers are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economic sequences, protest against the authorities, national health and governmental public relations and so on. The result shows that the news reports are consisted of the straight news(75.9%), feature stories(11.7%) and editorials(6.3%). More specifically, there is a comparatively high ratio of editorials(11.0%) for the ChosunIlbo, feature stories(20.9%) for the Hankyoreh, and the straight news(89.7%) for the KwangwonIlbo. In terms of the news frames stressed by the three dailies, the ChosunIlbo focuses and stresses on the national health(17.8%) and the attribution of responsibilities(10.6%). However, the Hankyoreh have a tendency to stress on the protest against the authorities(31.3%) and attribution of responsibilities(38.4%); the KwangwonIlbo, focuses on the protest against the authorities(38.4%) and the economic sequences(17.9%). Finally, in the case of the main characteristics of the dailies, the governmental public relations frame is found only on the ChosunIlbo that has a comparatively high ratio; the Hankyoreh also has a high ratio of the feature stories on the U. S. beef imports. Even though the KwangwonIlbo has a high ratio of the economic sequence frame, the ratio of opinion pages, such as editorial and columns, the local newspaper has not spoken up for the potential economic crisis of the local Kwangwon province beef industry, mainly caused by the U. S. import beef.

Key words: News frames, Social conflicts, the U. S. beef imports, Candlelight vigils, Frame effects, the U. S. beef protest